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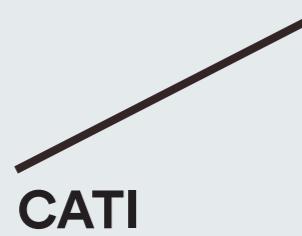
CATI

제103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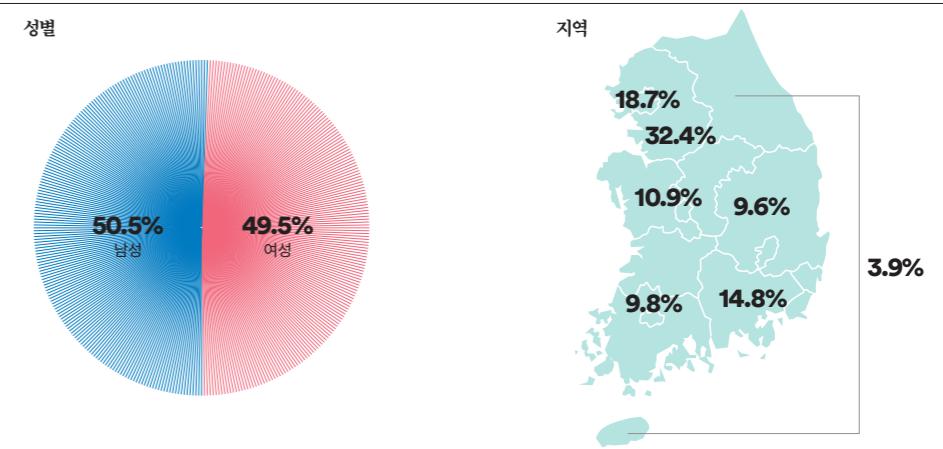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1.9 45.9 26.5 5.7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1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2.5% [총 통화시도 8,009명]
조사기간	2025년 2월 21일 ~ 2월 2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507	50.5	497	49.6
	여성	496	49.5	506	50.4
연령	18~29세	155	15.5	155	15.5
	30대	155	15.5	150	15.0
	40대	172	17.1	174	17.3
	50대	199	19.8	197	19.6
	60대	173	17.2	177	17.6
	70세이상	149	14.9	150	15.0
지역	서울	188	18.7	187	18.6
	인천경기	325	32.4	325	32.4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8	10.8
	광주전라	98	9.8	97	9.7
	대구경북	96	9.6	98	9.8
	부산울산경남	148	14.8	147	14.7
	경원제주	39	3.9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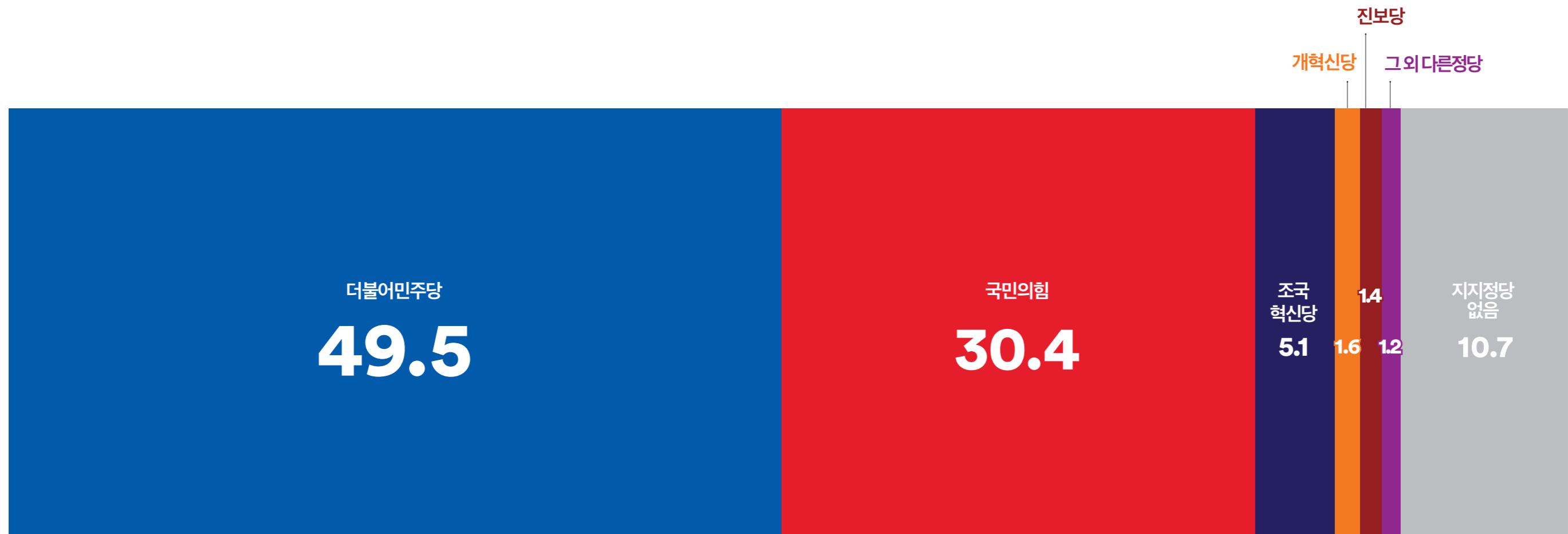


WWW.
FLOWERRESEARCH.
COM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결과는 표본조사사이므로 결값을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군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cut-off: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값값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에서 '자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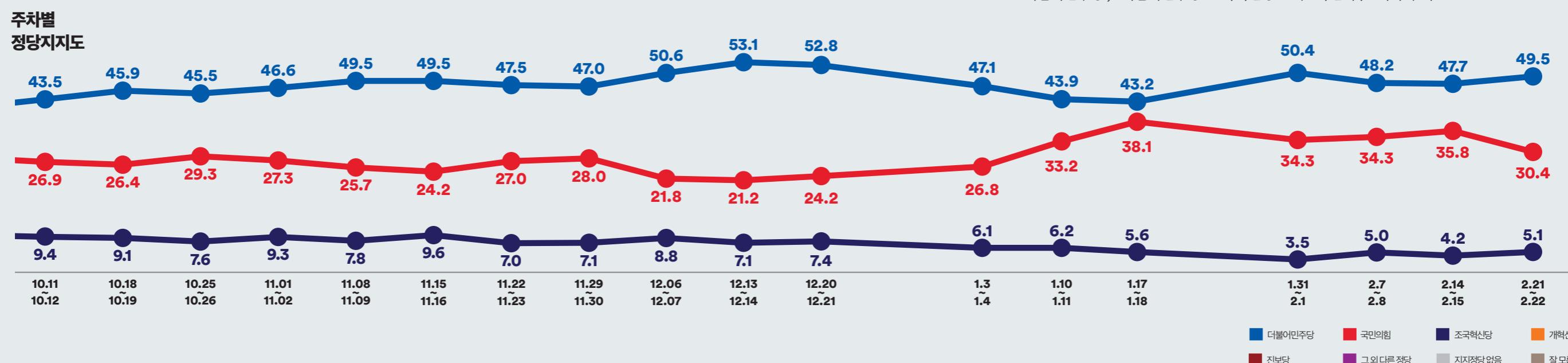


102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5.4%p 하락, '조국혁신당' 0.9%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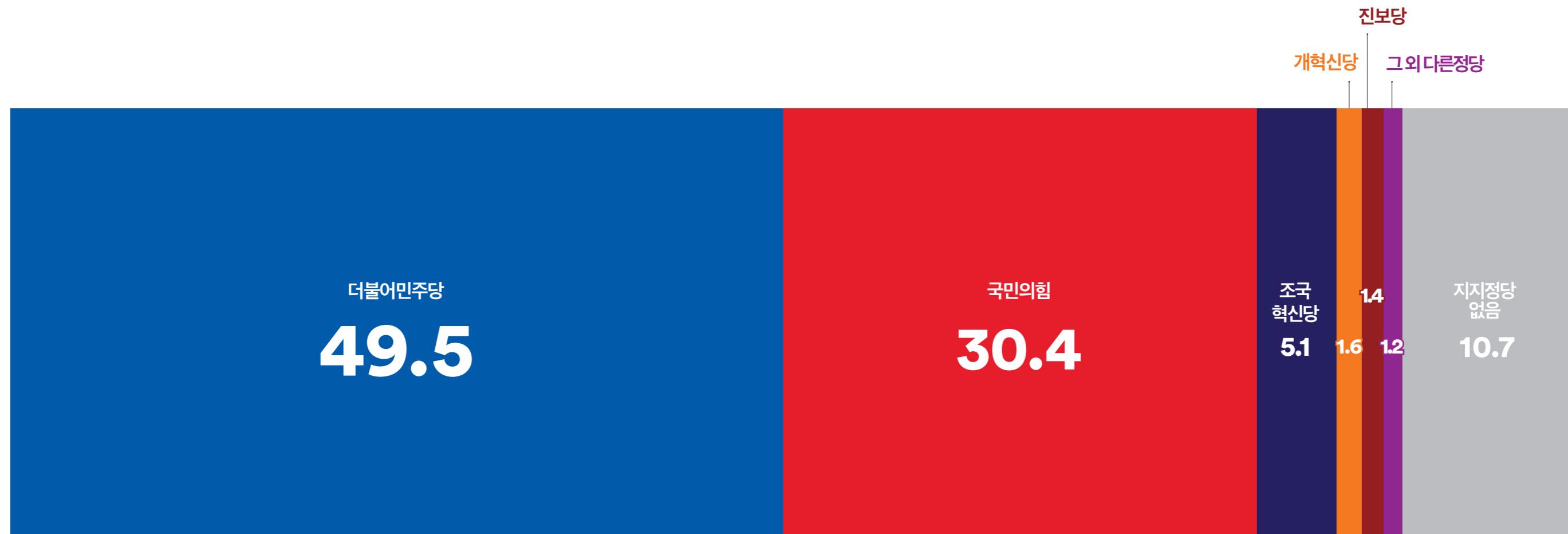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19.1%p (지난 조사: 11.9%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24.2%p (지난 조사: 16.1%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5.6%, '국민의힘' 21.3%, '조국혁신당' 5.8%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34.3%p(지난 조사: 23.3%p)

연령

18-29세	35.5	27.9	5.0	25.7	
18-29남	21.0	36.0	6.4	30.3	
18-29여	51.3	19.1	2.5	20.7	
30대	47.6	26.1	2.5	18.0	
30남	36.2	36.4	2.5	19.9	
30여	59.9	14.9	6.5	15.9	
40대	65.4	17.5	7.7	7.1	
50대	64.3	15.5	12.2	2.5	
60대	46.4	41.8	2.5	5.7	
70세 이상	31.8	58.7	2.5	6.0	

이념성향

진보	78.2	8.2	2.5	1.2	
중도	55.6	21.3	5.8	13.4	
보수	18.0	69.7	2.5	7.6	
잘모름	38.0	23.5	5.3	29.6	

성별

남성	45.8	31.0	2.5	12.6	
여성	53.2	29.9	5.4	8.8	

권역

서울	51.3	25.7	8.6	9.6	
인천·경기	52.5	28.7	2.5	10.5	
대전·충청·세종	45.7	37.3	5.8	10.3	
광주·전라	64.0	12.0	6.2	13.0	
대구·경북	35.2	50.1	2.5	10.5	
부산·울산·경남	44.4	33.7	2.5	12.8	
강원·제주	45.9	32.5	7.3	6.1	5.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모름

노상원: 수첩의 내용

Q.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대상자 명단 및 사살 방법, 장기 집권 관련 구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수첩의 내용이 실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실행되었을 것이다

62.4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30.6

잘 모름 6.9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실행되었을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31.8%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연령층, 중도층·진보층에서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4.0%)과 보수층(57.2%)에서 우세를 보임

18-29세 남성층과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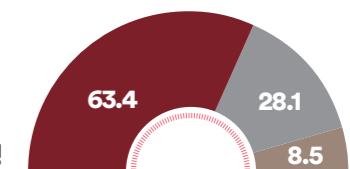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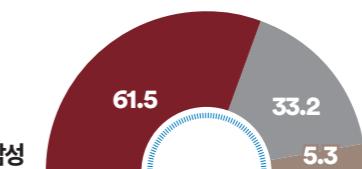
연령

18-29세	51.6	38.0	10.4
18-29남	42.9	46.3	10.8
18-29여	61.1	29.0	9.9
30대	65.5	30.0	4.5
30남	56.0	37.8	6.2
30여	75.9	21.4	2.7
40대	76.0	22.9	1.1
50대	79.6	18.4	2.0
60대	54.9	38.1	6.9
70세이상	41.2	39.9	18.9

이념성향

진보	90.4	8.7
중도	69.1	26.1
보수	30.6	57.2
잘 모름	50.9	27.4
		21.8

성별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2.7	5.8
국민의힘	11.3	74.0
조국혁신당	92.3	5.7
개혁신당	72.9	27.1
진보당	85.4	7.3
그외다른 정당	50.3	49.7
지지정당없음	50.2	35.8
		14.0

권역

서울	64.8	26.1	9.1
인천·경기	64.8	28.6	6.5
대전·충청·세종	57.8	34.7	7.5
광주·전라	78.8	18.6	2.6
대구·경북	44.1	51.4	4.5
부산·울산·경남	59.4	30.8	9.7
강원·제주	60.6	34.6	4.8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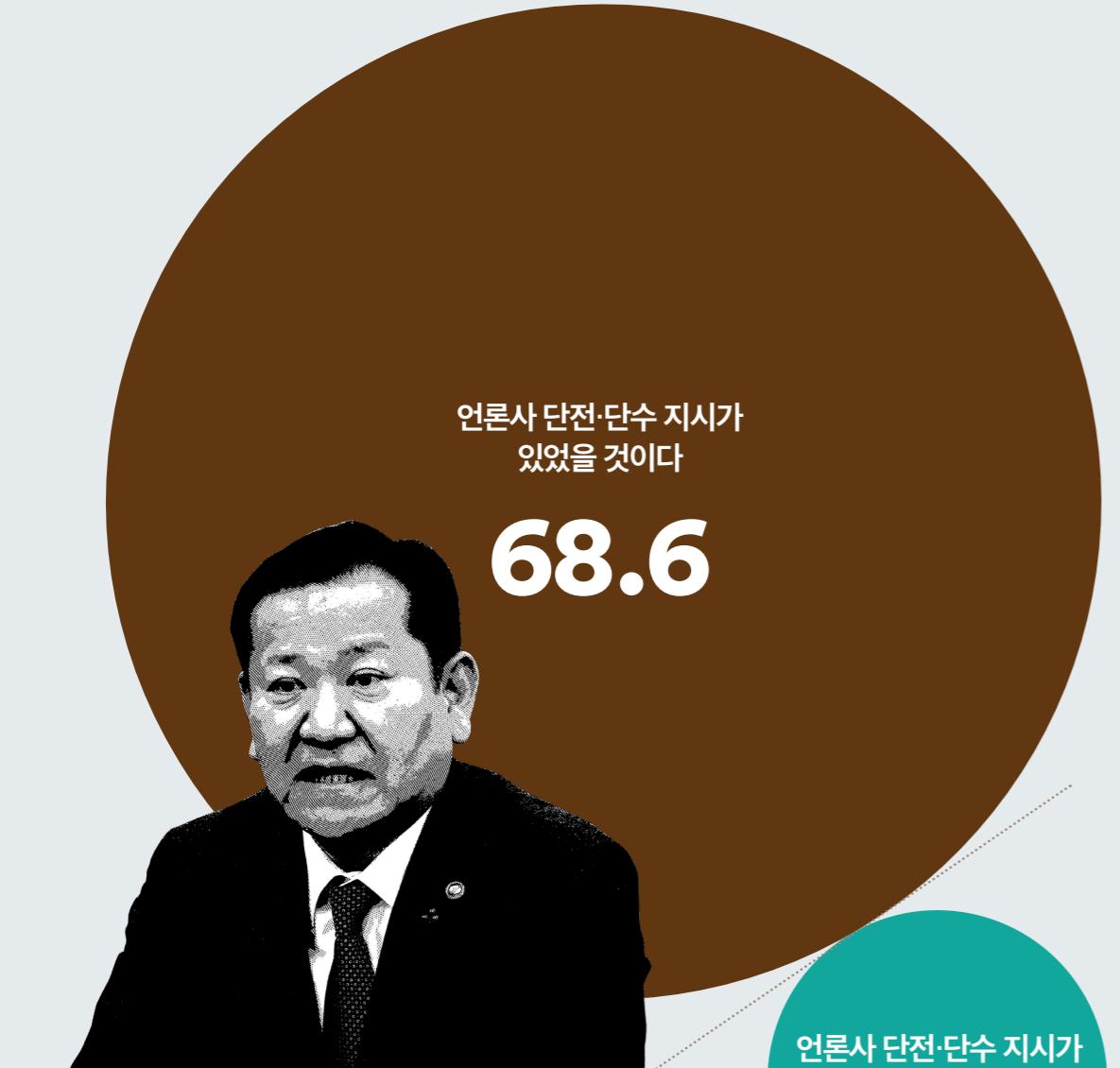
0.0

■ 실행되었을 것이다 ■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 잘 모름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Q.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방청장은 그런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건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은 없는지, 상황이 전반적으로 긍정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거고.”

[2025년 2월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장관 발언 중]

이상민 전 장관의 통화에 대해 68.6%가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5.2%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특히, TK를 제외한 전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를 보여 주목됨

‘지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65.3%), 보수층(51.0%)에서 높게 나타남

연령

18-29세	64.6	20.2	15.2
18-29남	58.2	26.5	15.2
18-29여	71.6	13.3	15.1
30대	70.6	19.0	10.4
30남	61.0	26.5	12.4
30여	80.9	10.8	8.3
40대	79.5	15.3	5.2
50대	83.7	13.8	
60대	61.5	32.7	5.8
70세이상	46.4	42.4	11.2

이념성향

진보	93.0	6.6	
중도	76.1	16.0	7.9
보수	37.4	51.0	11.6
잘 모름	61.0	18.4	20.6

성별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7.7		
국민의힘	17.2	65.3	17.5
조국혁신당	91.9		8.1
개혁신당	69.8	24.0	6.2
진보당	92.7		7.3
그외 다른 정당	66.8	33.2	
지지정당 없음	65.8	18.8	15.3

권역

서울	70.5	20.4	9.1
인천·경기	69.4	22.2	8.4
대전·충청·세종	65.4	25.9	8.8
광주·전라	86.6		9.9
대구·경북	51.9	41.4	6.7
부산·울산·경남	66.0	24.2	9.8
강원·제주	68.3	26.8	

잘 모름

최상복: 보지 않은 쪽지

Q. 최상복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조치 사항이 담긴 쪽지를 보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대행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26.7

최 대행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64.3

잘 모름 9.1

응답자 3명 중 2명은 "쪽지를 보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37.6%p)

모든 권역과 연령층에서 '최 대행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를 보임

'최대행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6.4%)에서만 높고 보수층은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

연령

18-29세	29.3	52.0	18.8
18-29남	39.9	42.8	17.3
18-29여	17.6	62.0	20.4
30대	24.0	63.2	12.9
30남	32.3	52.7	15.0
30여	14.9	74.5	10.6
40대	17.9	75.7	6.4
50대	18.9	76.2	4.9
60대	31.6	66.7	1.7
70세이상	41.1	46.3	12.6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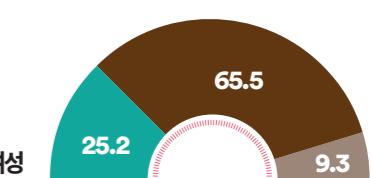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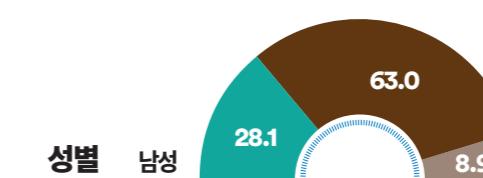
진보	10.2	84.5	5.3
중도	23.9	67.6	8.5
보수	44.9	45.7	9.3
잘 모름	26.2	46.6	27.1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1	87.1	3.8
국민의힘	56.4	29.3	14.3
조국혁신당	5.4	88.7	5.9
개혁신당	47.0	40.7	12.3
진보당	14.6	78.1	7.3
그외다른 정당	16.6	83.4	0.1
지지정당없음	33.0	45.8	21.1
잘 모름	0.0	0.0	0.0

권역

서울	22.8	68.5	8.7
인천·경기	25.8	62.7	11.5
대전·충청·세종	29.0	63.6	7.5
광주·전라	17.8	77.9	4.3
대구·경북	37.8	51.8	10.4
부산·울산·경남	27.4	63.4	9.1
강원·제주	36.2	59.8	4.0



조지호: 대통령의 전화

Q.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수사에서 '계엄 전후 대통령으로부터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재촉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 잘 모름

"계엄 전후 대통령으로부터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재촉하는 내용이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사실일 것이다'라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2.6%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체포지시는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77.3%), 보수층(56.7%)에서는 '사실이 아닐 것'은 응답 우세

연령

18-29세	62.8	27.0	10.2
18-29남	54.1	34.4	11.5
18-29여	72.4	18.9	8.6
30대	74.6	22.2	3.2
30남	66.0	29.1	4.9
30여	83.9	14.7	1.4
40대	80.7	17.6	1.7
50대	83.6	14.5	1.9
60대	59.9	37.8	2.3
70세이상	49.7	44.0	6.3

이념성향

진보	94.7	5.2
중도	77.2	22.8
보수	37.0	56.7
잘 모름	59.6	25.0
		15.4

성별

남성 68.6 26.2 5.2

여성

여성 70.0 27.1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8.2	1.7
국민의힘	16.0	77.3
조국혁신당	96.0	3.0
개혁신당	76.0	24.0
진보당	92.7	7.3
그외다른 정당	75.1	24.9
지지정당없음	69.7	16.3
		14.0

권역

서울	72.7	22.0	5.3
인천·경기	69.1	26.6	4.3
대전·충청·세종	61.9	34.0	4.1
광주·전라	89.2	10.8	0.0
대구·경북	51.7	44.7	3.6
부산·울산·경남	69.8	24.9	5.3
강원·제주	68.3	30.1	1.6

잘 모름

잘 모름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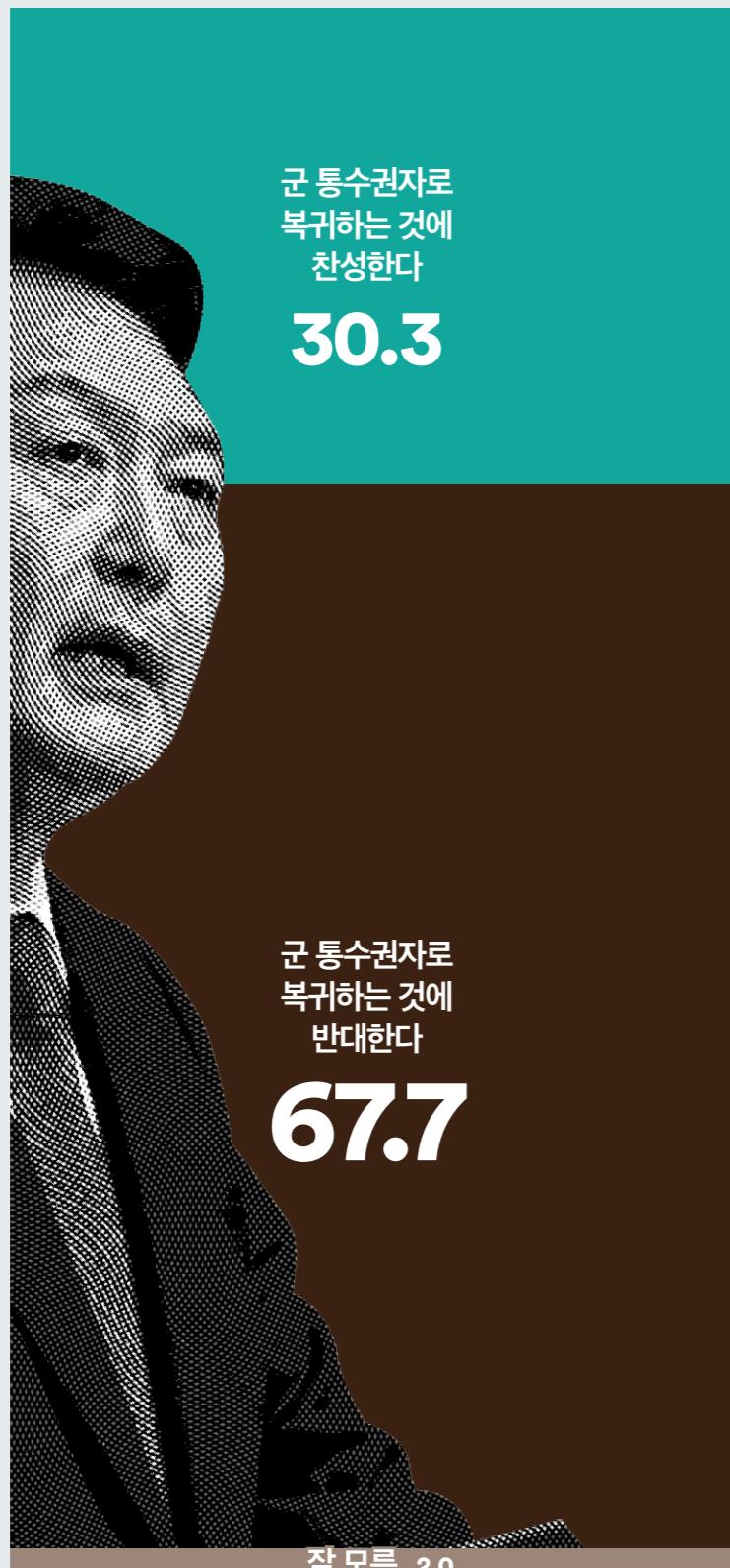
사실일 것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잘 모름

윤석열과 군통수권

Q.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37.4%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진보층(93.8%)과 중도층(75.6%),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층(71.3%)에서 압도적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87.2%), 보수층(64.7%)은 '군통수권자 복귀에 찬성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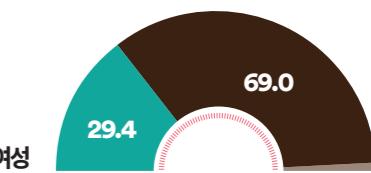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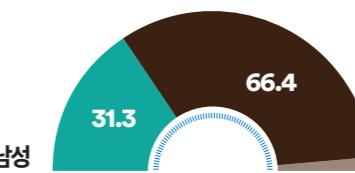
연령

18-29세	32.1	62.1	5.8
18-29남	42.6	49.8	7.6
18-29여	20.5	75.6	
30대	26.8	71.3	
30남	36.5	61.1	
30여	16.2	82.4	
40대	18.1	81.3	
50대	14.9	84.6	
60대	41.2	58.3	
70세이상	53.8	42.9	

이념성향

진보	6.2	93.8
중도	21.6	75.6
보수	64.7	33.5
잘 모름	32.2	64.1

성별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8.2	
국민의힘	87.2	9.9
조국혁신당	98.1	
개혁신당	17.9	82.1
진보당	7.3	85.4
그외다른 정당	24.9	75.1
지지정당없음	20.3	71.3
잘 모름	0.0	8.4

권역

서울	27.7	68.5
인천·경기	28.1	70.1
대전·충청·세종	36.6	61.5
광주·전라	13.2	86.8
대구·경북	48.3	49.8
부산·울산·경남	32.3	66.5
강원·제주	34.1	63.4

* 102차 정례조사 결과(2025.2.14-2.15 진행)

찬성한다
비대한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2_05

여론조사 